

교만은 지옥, 겸손은 천국 ❧

교만이란,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의롭다, 내가 조금 더 실력 있다"라고 자기를 앞세우고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 '주인공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 자기는 세상에서 주연배우로 연기하고 있고 부모·형제·친척·친구 등 모두가 자기를 에워싼 엑스트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어린이는 청소년이 되어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럿이 사진을 찍을 때 언제나 앞줄 중앙을 노리고, 토론을 할 때는 혼자 대부분 말을 하고 학교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도 대표가 될 때는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뿐이라면 좋은 영화나 연극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깊은 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그의 치유를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화들을 무척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에는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 값비싸고 많은 보화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보물상자 등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세력을 강화한 바벨론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왕궁의 모든 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우쭐한 마음은 큰 화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교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교만의 뿌리를 찾아내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고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확신과 능력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과 약함 혹은 열등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윌리엄 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교만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이 하나도 여러분 속에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을 단지 적절하지 않은 기질로 보거나 겸손을 적절한 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교만은 곧 지옥이요, 겸손은 천국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고 일을 성취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고 큰 자가 되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교만은 주님의 겸손의 빛 앞에 시들고 약하여지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역시 '주의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갈망하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이순열 / 전주제일교회 강도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